

[종합·해설]

민주당 박주선씨 서울시장 출마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로 뛰어 왔던 박주선 전 의원이 30일 전남지사 경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의원의 '서울 회군'으로 호남표가 많은 서울시장 선거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각 당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31 지방선거의 전략적 요충지는 수도권"이라며 "민주당 살리기와 국민대통합을 위해 서울시장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중앙당의 갑작스런 서울시장 출마 제의를 받고 깊은 고민과 고뇌 끝에 다수 지지자들의 의견을 좇아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했다"며 "민주당의 운명과 미래를 구할 구원투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저는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라는 정치적 탄압과 시련을 사필귀정의 신념으로 이겨냈다"며 "이번 선거 이후 필연적으로 정계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정책과 비전을 보고 투표하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제외한 제 정파의 연대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

"당 살리고 국민 대통합 위해 결심" 호남표 맞아 선거 판도 큰 변화 예고



민주당 박주선 전 의원이 30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전남도선관위에 전남지사 예비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의를 가는 것에 대한 고심과 충정을 이해해주시길 것으로 믿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번 선거 이후 필연적으로 정계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정책과 비전을 보고 투표하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제외한 제 정파의 연대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

식 선언하자 민주당은 '살신성인의 결단'이라며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박주선 카드는 결국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최악의 카드가 될 것'이라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박주선 후보의 출마는 한나라당을 돕는 일이며 왜 이런 선거구도에 이용당해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민주당 입장에서 전남지사 경

선 잡음을 처리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서울시장 후보 자리가 민주당내의 교통정리용 자리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자신이 승리하려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는 것인지, 우리당의 발목을 잡으려고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박주선 전 의원의 결단은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를 가를 '태풍이 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상열 대변인은 "살신성인의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눈앞의 이익보다 민주당 승리를 바라는 충언을 듣고, 호남에서 시작해 수도권과 전국을 갈타할 바람이 돼 정치의 신화를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박 전 의원의 서울시장 후보 전략공천 여부를 다음달 3일 공직후보자자격을 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한다.

한나라당은 박 전 의원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이 뜻밖의 호재라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박주선씨 서울시장 출마

민주당 박주선씨 서울시장 출마

민주당 박주선씨 서울시장 출마

민주당은 나주시장 후보로 김대중 전 나주시장을, 화순군수 후보로 전형준 화순발전연구회 회장을, 무안군수 후보로 이상욱 목포·무안·신안



김대중 후보



전형준 후보



이상욱 후보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 전 시장과 전형준, 나 축협장이 각각 최대 득표세 시장과 군수 후보로 확정

제 2선거구 후보로는 김상봉 전 전남도당 정책기획국장을 각각 선정했다.

또한 도의원 화순 제 1선거구 후보로는 구충곤 연청 전남도회장을, 제2선거구 후보로는 홍익식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운영위원을 각각 확정했다.

도의원 무안 제 2선거구 후보로는 김철주 무안군 약사회회장을 확정했고, 제 1선거구는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해남 기초의원 후보 선정

○민주당 해남위원회는 30일 해남군 가선거구 기초의원 후보로 김용철·이종복·임길수, 나선거구 후보로 김평용·명재구, 다선거구 후보로 조광영·이은옥, 라선거구 후보로 장호성·박희재씨를 각각 선정했다. 이들은 전남도당 공직위 심사를 거쳐 후보로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광주 남구 다선거구 기초의원 시민배심원단 경선을 실시, 권용일·박달중·유정심·피길연·채선필 후보를 선출했다. 시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최종 후보를 정한다.

북구 발전 정책·비전 제시

○30일 전남대에서 실시된 '열린우리당 광주 북구청장 경선후보 정책토론회'에서 각 후보는 북구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형식 후보는 "일곡지구에서 무등산까지 연결하는 인과가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에코리안 조성하겠다"며 "광주연구개발특구 배후도시와 첨단 2차 62만 평 개발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북구를 광주의 중심축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진승 후보는 "북구간 지역과 북구를 지역에 각각 30억 규모의 어린이 도서관 2개를 건립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용영 후보는 "당원들의 사이며 토론공간인 우리당 북구 커뮤니티 활성화에 힘쓰겠다"며 "북구청장이 된다면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사행정을 투명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31일 밤 9시 30분 채널 5의 CMB유선방송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김선옥·신익섭씨 선거사무소 개소

○5·31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자들이 잇따라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고 있다.

민주당 신익섭 광주시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광주시 동구 장동 노동청 4거리에 선거사무소(222-5310)를 마련하고 31일 오후 2시 개소식을 갖는다. 같은 당 선거구 광주시 북구 제1선거구 광역의원 예비후보도 지난 29일 북구 우산동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열린우리당 김선옥 서구청장 예비후보도 광주시 서구 금호동 금호파출소 맞은편에 선거사무소(434-

0333)를 마련하고 30일 오후 7시 개소식을 거졌다.

뒤늦게 선거출마 선언 잇따라

○5·3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드는 입지자가 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최영호 광주시의원은 30일 "재선의 경륜과 젊고 개혁적인 마인드로 지역의 미래 발전을 이끌겠다"며 광주시 남구 제1선거구 광역의원 선거 재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박찬호 정책자문위원도 이날 "광주시 북구에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겠다"며 북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영록 세무사도 이날 민주당 광주시 북을 제4선거구 광역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산림휴양공간 확대 ▲백주축제 개최 ▲황룡강 생태환경 정비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또 권용일 민주당 연청 광주 남구 회장은 29일 광주시 남구 다선거구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노진씨 "매니페스토 공개 검증"

○전노진 민주당 전남도의원(강진 제1선거구) 예비후보는 30일 ▲강진 스포츠타운 및 실버타운 건설 ▲생물자원센터 건립 ▲전남 중부권 거점도시 육성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자원 보존 및 개발 등 5대 역점시책을 골자한 한 세무 공약을 제시하고 매니페스토(공약 제대로 따져보기)에 의한 공개검증을 받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쟁 건설업체인 동광건설 부사장을 맡고 있는 전 후보는 이날 "22년동간의 공직경험과 중견기업에서 쌓은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토대로 강진권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도지사 후보 선출 '당원 직선' 재요청

○국창근 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30일 중앙당에 전남지사 후보 선출을 '당원 직선'으로 해달라고 재요청했다.

국 후보는 이날 "최근 후임당원 후보가 불법으로 유회되고 여론조사 공천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도지사 후보 공천은 '당원 선거구제'에 의한 직접 선거로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구인·구직·운전·모집
초빙·영업·모임
사실금융·매입·부동산
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번호: 011-107-228160
직통: (062)227-9600

상속한정승인공고
광고민권명
한정승인수리말: 2006. 3. 7
공고기간: 2006. 3. 31 ~ 2006. 5. 31

무담보 무보증
가계당좌어음할인급전
010-3144-5830

어음가계 담보
어음 1,000만원 이하 환영
[月2~5.5%]
010-3009-6633

분양대행 전문회사
(주) 청담 D & C
Tel. 0627382-4984 / Fax. 0627384-0049

공무원 대출 (직장인)
공무원
교직원(공립, 사립)
군무원
080-500-6620 (무로전화)
011-9535-8236 (상담실장)

Wellbeing & Blue Ocean
전국은 바다와 섬에 폭빠졌다!
이제는 해산물 시대!
전국 일일 직배송시스템!
투자대비 높은 수익률!
www.cheebar.com
www.seommaul.com

제6기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2005년 12월 31일 현재)
과목 산 금액 부 과 목 재 금액
I. 유 동 자 산 15,870,151,634 I. 유 동 부 채 22,410,709,384

산행
광주대자연회 회원
광주대자연회 회원
광주대자연회 회원